

岩泰島 小作 爭議

— 600名의 餓死 同盟 —

이 강 때

全羅南道 新安郡 앞 바다에 더 있는 작은 섬 岩泰島, 이 섬에 사는 農民 400餘 名은 돛단배 7隻에 나눠타고 木浦港에 내렸다.

1924年 6月 4日의 일이다.

이들은 木浦警察署로 거침없이 밀고 들어갔다

“代表者가 누군가? 어째서 이렇게 騷亂을 피우고 다니는가?”

日本人 署長이 나와 소리쳤다.

“같이 일하던 사람들을 放免해달라고 왔소.”

農民 한 사람이 對答했다.

“放免? 罪진 놈들을 방면하라고? 잔소리 말고 모두 가라!”

“우린 갈 곳도 없소. 그 사람들이 放免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겠소!”

해가 저물자 岩泰島 住民들은 警察署 마당에서 밥을 지어 먹었다.

다음날 200名의 섬 住民들이 더 왔다.

모두 600餘 名에 달하는 사람들이 警察署에서 集團 籠城을 繼續했다.

8日 아침, 食糧이 떨어졌다.

木浦 사람들이 이들을 同情하여 먹을 것을 내주었지만, 더 버티는 것은 無理였다.

岩泰島 農民들은 일단 撤收였다.

事件의 發達은 地主 文在喆의 橫暴였다.

3萬石을 거둬들이는 地主 文在喆은 岩泰島 住民으로부터 無慮 80%에 달하는 高率 小작세를 받고 있었다.

섬 住民들은 一年內 熱心히 農事 짓고도 굶는 形便이었다.

1923年 12月 岩泰島 小作人會가 結成되었다.

會長 서태식은 3·1運動 1周年을 記念하여 木浦 송도공원 鐵道停車場 廣場에 ‘大韓獨立 1周年 警告文’을 붙였다가 逮捕되어 1年間 服役한 뒤 블라디보스톡, 서울에 가서 社會主義 思想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그는 故鄉 岩泰島에 돌아와 小作人會 組織에 뛰어 들었다.

당시 나이 40살, 1924年 4月 朝鮮 勞農總同盟이 結成되었을 때 그는 執行 委員으로 選出되었다.

岩泰島 小作人會는 小作料 40%를 主張했다.

서태식은 面民大會를 召集, 地主 文氏에게 小作人會와 主張을 알리고 만약 拒否하면 보다 積極的 攻勢를 取할 것이며, 특히 文氏 아버지의 頌德碑를 回收하자고 決意했다.

文在喆이 約束한 날짜가 지나도록 아무런 대답이 없자 小作人會는 마을에 서 있는 頌德碑를 쓰러뜨렸고, 文在喆은 그에 대한 報復으로 小作人 會員들을 集團 毆打했다.

뒤따라 섬에 들이닥친 日本 警察은 小作人 會長 서태식을 비롯해 13名을 拘束하고, 文氏側에서는 3名만 拘束했다.

住民들이 木浦로 가 集團 籠城을 한 것은 小作人會 拘束者들을 釋放시켜 달라는 要求를 하기 위해서였다.

木浦警察署 集團 籠城 후 섬으로 돌아온 住民들에게 拘束者들이 騷擾, 傷害罪로 裁判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들렸다.

岩泰島는 발각 뒤집혔다.

“幹部는 모두 懲役을 살고 우리만 집에 있을 것이냐!”

“幹部는 幹部대로 잃고 小作料는 그대로 물고!”

“가자! 幹部를 안 내놓으면 우리도 거기서 굶어 죽자!”

7月 8日 섬 住民 600餘 名이 木浦에 도착했다.

이들은 餓死 同盟을 다짐했다.

東亞日報은 그 날 밤의 悲壯한 場面을 이렇게 報道했다.

“大地로 요를 삼고 蒼空으로 이불을 삼아 입은 옷에야 흙이 묻든지 말든지 줄어드는 창자야 끊여지든지 말든지 오직 하나 집을 떠날 때 걱정만 마음으로 그 날 밤을 자는 등 마는 등 또다시 그 이튿날을 당하게 되었다.”

단식 이틀째, 東亞日報에는 ‘老翁과 少婦 200名이 饑餓 중 굶은 어머니에게 매달린 어린 목숨이라는 記事가 실렸다.

보다 못한 木浦 市民들이 죽을 굶여다 주었지만 섬 住民들은 이조차 拒絕했다.

11日 警察은 小作會 幹部 26名을 拘束했다.

12日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추위와 배고픔에 보채는 어린 아이의 얼굴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그를 치맛자락으로 닦아 내는 어머니의 얼굴에서도 빗물과 눈물이 뒤범벅 되어 흘러 내렸다.

全國의 輿論이 들끓었다.

岩泰島 小作人會 支持講演會, 募金會가 열리고 無料 辯護하겠다는 辯護士도 나섰다.

14日 日本人 首席 判事는 事件을 一週日 內에 解決하고 拘束者 중 患者는 保釋하겠다고 約束했다.

섬 住民들은 一旦 解散하여 事態를 지켜보기로 했다.

餓死 同盟 6日만이였다.

日帝 當局과 地主 文在喆은 8月 30日 드디어 小作料 調整 約定書를 내밀었다.

內容은 이러했다.

1. 地主 文在喆과 小作人會間的 小作料는 40%로 約定하고, 地主는 小作人會에 金 이천원을 寄附한다.
2. 大正 12年度(1923年) 未納 小作料는 向後 3年間に 걸쳐 無利子로 分割 償還한다.
3. 拘禁中인 雙方 人士에 대하여는 9月 1日 公判廷에서 雙方이 告訴 取下한다.
4. 무너진 碑石은 小作人會의 負擔으로 復舊한다.

爭議가 일어난 지 꼭 1年 만에 小作料 80%에서 40%로 낮추는데 成功한 것이다.

拘束된 13名에 대한 裁判은 告訴 取下에도 不拘하고 進行되었다.

檢事는 서태식에게 懲役 3年, 서창석 懲役 1年 등을 求刑했지만 모두 풀려 나왔다.

岩泰島 小作 爭議는 1年이라는 긴 爭議 期間, 全 住民이 一致 團結하여 벌인 斷食 鬪爭 등 1920年 農民 運動 가운데 가장 熾烈했던 싸움이며, '勝利한' 싸움이다.

表面的으로는 小作人과 地主間的 싸움이었지만, 地主의 背後에는 植民 統治者 日帝가 있었다.

岩泰島 小作 爭議에 刺戟받아 이웃 荏子島, 都草島, 자운도, 梅花島, 荷衣島에서도 小作 爭議가 일어 났다.

뭉치어라 작인들이 뭉치어라
우리들의 부르짖음 하늘이 안다
뭉치어라 작인들이 뭉치어라
놀이 먹는 지주들은 누구의 덕인가

岩泰島 小作人會는 1926年 農民 組合으로 名稱을 바꾸었다.

그리고 '在來적 鬪爭 路線을 政治的으로 擴大하는 同時에 朝鮮 單一 民族 黨(新幹會를 뜻함) 組織을 促成한다'는 內容을 決議했다.

서태식은 1927年 第3次 共產黨 宣傳部長 및 全南道責으로 일하다가 日帝에 붙잡혀 收監되었다.

